'불심 깃든 쇳물, 강원 · 전북 철불'

국립익산박물관, 철불 조성 배경 · 제작 시기 · 방법 등 중심 기획 총 33건 51점 전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25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순회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과 전북의 철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철불의 조성 배경과, 제작 시기와 방법 등 보존과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주요 전시품은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3호), 임실 중기사 철조여래좌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68호)을 비롯한 총 33건 51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철불 안 들여다보기' 등 4부로 구성됐다.

먼저 제1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에서는 어떤 재료로 불상을 제작했는지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귀하게 여긴 다양한 재질의 불상을 소개한다.

제2부 '어디서 만들었을까?'에서는 주조 구덩이, 부처 나발 모양의 거푸집 등이 출토된 강원도 동해 지가동 유적과 제련로 벽(爐壁)과 철 찌꺼기가 출토된 장수 대적골 유적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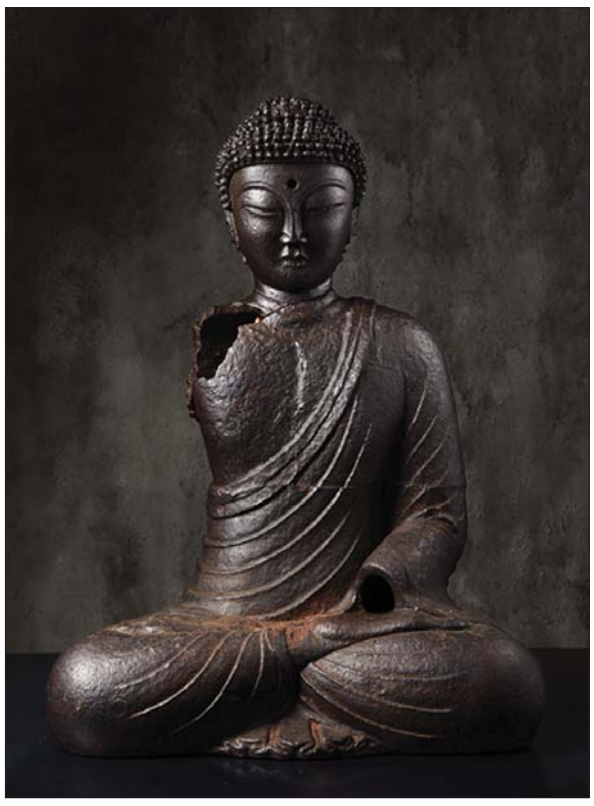
제3부 '어떻게 만들었을까?'에서는 과학적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대한 철불의 제작 방법을 소개한다.

제4부 '철불 안 들여다보기'에서는 250kg에 달하는 무게로 인해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던 철불의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전을 포함한 전시 관람은 박물관 누리집(https://iksan.museum.go.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임실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전북대 곽연송 학생,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금상'

팝업가든 콘테스트서 '활짝원(園)' 작품으로 수상

곽연송 학생이 디지인한 팝업가든.

전북대학교 곽연송 학생(생태조경디자인학과 4년 · 지도교수 박율진)이 최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1년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팝업가든 콘테스트'에서 '활짝원(園)'이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ink Garden, Think Life'(정원을 생각하다, 일상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곽연송 학생은 '활짝 열고, 활짝 피고, 활짝 웃는 정원 : 활짝원'으로서 팝업가든을 디자인하고 서울 만리동 광장에 시공해 행사 박람회 기간 동안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일시적 정원을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문이 한껏 시원스럽게 열린 모양을 주 컨셉으로 이끌어낸 활짝원은 문을 열어젖히며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는 정원을 표현했다. 문이 '활짝' 열린 공간 너머로 꽃이 '활짝' 피어나고, 마을의 소통 공간인 활짝원에서 이웃 간의 정도 깊어지며 사람들은 얼굴에 '활짝' 웃음을 머금게 될 것이다.

곽연송 학생은 "멀리 나서는 길이 공포가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에 지역 안에서의 소통이 더없이 소중해졌다"며 "공원 속 자투리 공간에 들어선 '활짝원'이 작지만 큰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율진 지도교수는 "그간 학업 내용과 실습을 토대로 평소 정원 작품 및 현장 참여 교육에 적극 참여해 규모 있는 박품회 공모전에서 이뤄낸 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수상이 향후 관련 분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자신감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융 · 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탄력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체부 '창의예술교육 랩'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의예술교육 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2억5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지역은 전북, 경북, 부산 3곳으로,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는 재단의 연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파급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해 오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 기관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기능을 병행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의예술교육 랩'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융 · 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다.

재단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전북의 농업, 문화유산, 환경을 과학기술(홀로그램, 코딩, 미디어)과 연계한 융 · 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 개발 · 실행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방식은 전북예술회관 내 '창의예술교육연구소'를 설치해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콘텐츠를 연구 ·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 도내 지역문화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주시 재활용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의 대학, 예술가, 교육자, 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융 · 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보급 · 유통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예술진흥본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6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남원시는 24일 향교에서 문화재돌봄 전북동부권사업단(이하 돌봄), 남원소방서와 합동으로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경미 단장(돌봄)의 문화재 소유자 관리 원칙과 관리소홀에 의한 훼손사례 설명과 이정의 팀장(돌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문화재관리방법 및 남원소방서의 소방시설사용법과 안전점검요령 교육이 진행됐다.

문화재돌봄 전북동부권사업단은 2015년부터 매년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과 소화기 사용 방법, 안전점검 요령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복권기금과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동부권 지자체의 315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박승용 남원시 문화예술과 과장은 "문화재 소유자들이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재 관리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몸에 체득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